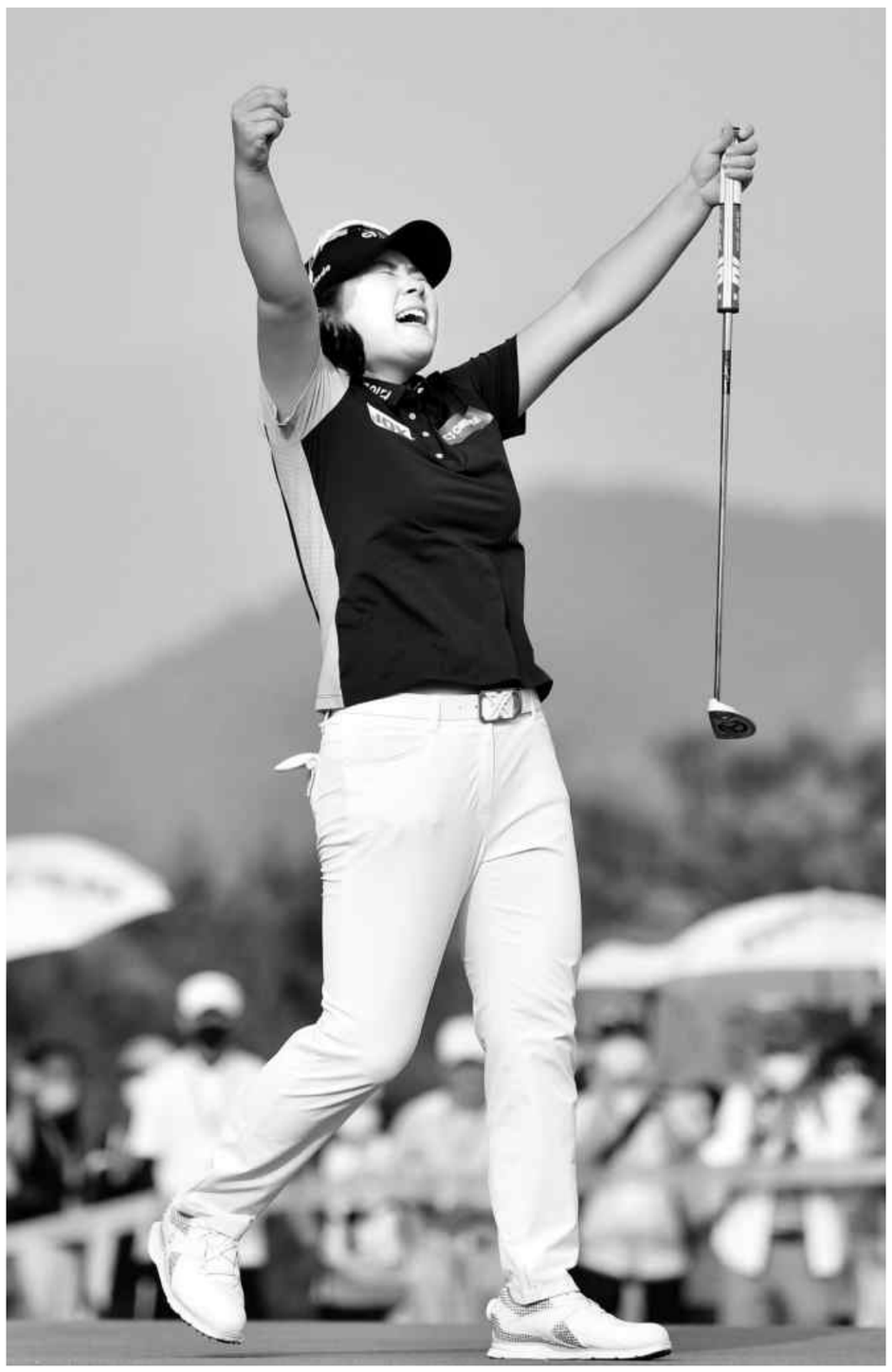
KLPGA '새로운 강자' 홍정민 2연승 도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년 차 홍정민(20)이 지난 22일 열린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 정상에 오른 뒤 두손을 번쩍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산 매치플레이서 생애 첫 우승
여세 몰아 27일 E1 채리티 출격
준우승한 신인 이예원 설욕 나서
디펜딩 챔프 지한솔 2연패 노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새로운 강호로 떠오른 2년 차 홍정민(20)이 2연승에 도전한다.

홍정민은 27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이천 사우스스프링스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E1채리티오픈(총상금 8억원)에 출전한다.

홍정민은 22일 끝난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에서 디펜딩 챔피언 박민지(24)의 매치 12연승 신기록을 저지하고, 작년 신인왕 송가은(22)과 임희정(22)을 잇달아 꺾으면서 생애 첫 우승을 이뤘다.

신인이던 지난해 준우승 두 번으로 '될성부른 떡잎'임을 알린 홍정민은 이번 시즌 7번째 대회에서 챔피언 대열에 올랐다.

상금랭킹도 6위로 껑충 뛰었다.

'2년차 징크스'를 이겨내고 새로운 강호로 등장한 셈이다.

대전에서 태어나 자란 홍정민은 '리틀 박세리'로 불릴 만큼 간결하고 힘 있는 스윙이 강점이다.

이번 시즌 초반에 불안했던 퍼트도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을 계기로 바로 잡았다.

신인이던 작년에는 그린에서 헤맨 탓에 컷 탈락했지만, 홍정민은 퍼트에 자신감을 장착한 올해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홍정민은 "정규투어 2연승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욕심내서 우승을 노리려고 하지 않겠다. 하지만 부담을 내려놓고 플레이한다면 지난 대회 때의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에서 결승까지 올라 홍정민에게 아깝게 진 신인 이예원(19)도 설욕에 나선다.

이예원은 7차례 대회에서 준우승을 포함해 4번이 6위 이상 성적을 내는 등 신인답지 않은 빼어난 경기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한솔(26)은 대회 2연패를 노린다. 대회가 열리는 사우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은 지한솔에게는 텃밭이다.

통산 2차례 우승을 모두 사우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에서 따냈다. 2017년 이곳에서 열린 ADT캡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뒀고, 작년에는 4년 동안 이어졌던 우승 갈증을 사우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에서 해소했다.

작년에는 배선우(28)의 대회 최소타 기록(196타)에 2타 모자란 198타를 쳤다. 그만큼 코스와 궁합이 잘 맞는다.

지한솔은 "가장 좋아하는 코스다. 자신 있는 골프장에서 타이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통산 5승 가운데 2승을 사우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에서 올린 2020년 챔피언 이소영(25)도 눈여겨볼 선수다.

장수연(28), 조아연(22)은 홍정민과 시즌 2승 선착 경쟁을 벌인다.

대회 최소타 기록 보유자 배선우와 KLPGA투어 최다 출전과 최다 컷 통과 기록을 남기고 은퇴를 앞둔 홍란(36)이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

상금랭킹 1위 유해란(21)은 US여자오픈에 출전하느라 이번 대회는 쉰다.

박민지(24)도 휴식차 이번 대회에 출전 신청을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토머스 내친김에 연승 도전
임성재·이경훈도 우승 사냥
PGA 찰스 슈와브 27일 개막

지난주 PGA 챔피언십 역전 우승의 주인공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내친김에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토머스는 27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컨트리클럽(파70·7209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총상금 840만 달러)에 출전한다.

PGA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7타 차를 뒤집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토머스는 우승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찰스 슈와브 챌린지 첫 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에 3번째 출전하는 토머스는 2020년 대회서 공동 10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다. 하지만 PGA 투어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토머스를 "시즌 내내 기량이 급등하고 있다"며 '파워랭킹' 4위에 올렸다.

PGA 투어가 선정한 파워랭킹 1위는 토머스의 오랜 친구로 잘 알려진 조던 스피스(미국)다. 이 대회에 10번째 출전하는 스피스는 2016년 이후 5년 만의 이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코로나19에 확진돼 PGA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못한 임성재(24)와 AT&T 바이런 넬슨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PGA 투어 2연패에 성공한 이경훈(31)도 이번 대회 우승 사냥에 나선다.

2020년 대회에서 공동 10위에 올랐던 임성재는 PGA 투어가 뽑은 파워랭킹에서 8위에 올랐다.

PGA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한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이번 대회서 자존심 회복을 노린다. /연합뉴스

이준혁, 43년 만에 남자 대학부 100m 신기록

대학육상선수권 10초18 우승

이준혁(21·한국체대)이 한국 육상 남자 대학부 100m 기록을 43년 만에 바꿔놨다.

이준혁은 24일 전라북도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7회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 10초18로 우승했다.

10초18은 고(故) 서말구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동아대 재학 중이던 1979년 9월 9일 멕시코시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세운 10초34를 0.16초 당긴 '한국 대학 신기록'이다.

이준혁이 레이스를 펼칠 때 등 뒤로 바람이 초속 2m로 부는 행운도 따랐다. 육상 100m는 바람이 초속 2m 이하로 불 때만 '공식 기록'으로 인정한다.

정확히 바람이 초속 2m로 측정돼, 이준혁의 기록은 '한국 대학 신기록'으로 인정받았다.

이준혁은 남자 100m 한국기록(10초07) 보유자 김국영(31·광주시청)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10초1대에 진입한 스프린터가 됐다.

선수 기준 한국 남자 100m 3위는 10초27의 이규형이다.

이날 2위는 10초32에 레이스를 펼친 이재성(21·한국체대)이 차지했다.

여자 대학부 400m에서는 이가은(영남대)이 58초94로 1위에 올랐다.

'서울대 새내기 스프린터' 박다윤은 지난해 인천체고 재학 중에 세운 개인 최고 56초11보다 3초 이상 느린 59초78로 2위를 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22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시리즈대회 여자 100m에서는 유정미(안동시청)가 11초61로 정상에 올랐다.

11초61은 '선수 기준' 한국 육상 여자 100m 3위 기록이다.

이영숙이 1994년 11초49의 한국 기록을 세웠고, 2009년 김하나가 11초59로 선수 기준 역대 2위 기록을 작성했다.

유정미는 개인 최고 11초63의 기록을 보유한 강다슬(광주광역시청)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에 강다슬은 출전하지 않았다.

멀리뛰기 강자였던 유정미가 100m에서도 11초61의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강다슬의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

노바크 조코비치

라파엘 나달

메이저 최다우승 경쟁 조코비치·나달 '1회전 쯤이야'

프랑스오픈 테니스 2회전 진출

메이저 테니스 대회 최다 우승 경쟁을 벌이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라파엘 나달(5위·스페인)이 프랑스오픈 첫판을 여유롭게 통과했다.

조코비치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남자 단식 1회전에서 니시오카 요시히토(99위·일본)를 3-0(6-3 6-1 6-0)으로 제압했다.

지난해 대회 준결승에서 나달을 물리친 끝에 우승한 조코비치는 대회 2연패, 통산 3회 우승을 향한 도전을 순조롭게 시작했다.

조코비치는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에서 통산 20차례 우승, 올해 호주오픈에서 우승하며 이 기록을 21회로 늘린 나달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로저 페더러(47위·스위스)도 20차례 우승해 조코비치와 이 부문 공동 2위에 올라있다.

조코비치에게 이번 프랑스오픈은 올해 초 코로나19 백신 거부 파문 끝에 호주오픈 출전을 거부당한 아쉬움을 털어낼 기회이기도 하다.

조코비치는 알렉스 몰찬(38위·슬로바키아)-페데리코 코리아(54위·아르헨티나) 경기 승자와 2회전을 치른다.

나달도 조던 톰프슨(82위·호주)에게 3-0(6-2 6-2 6-2)으로 완승하고 2회전에 진출했다.

나달의 다음 상대는 스탄 바브링카(264위·스위스)를 꺾고 올라온 코랑탱 무테(139위·프랑스)다.

나달과 무테는 이번이 첫 맞대결이다.

클레이 코트에서 워낙 강해 국내 팬들이 '흙신'이라는 별명을 붙인 나달은 클레이에서 펼쳐지는 프랑스오픈에서 13차례나 우승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 2
2관	범죄도시 2, 몬스터 싱어: 매직 인 파리
3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4관	범죄도시 2
5관	범죄도시 2
6관	범죄도시 2
9관	범죄도시 2
7관 씨네커플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안녕하세요, 서울괴담
8관 씨네커플	그대가 조국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Brahms's
일시 : 2022.06.03.(금)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524-5086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5.03.(화)~31.(화)
매주 화요일 ~ 토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